

<2013.07.17.~2013.07.19.>

## 전라매일

# 김완주 지사, 운곡습지 방문

〈고창군〉

이강수 군수 등과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탐방

전북도 김완주 지사는 지난 16일 고창군 아산면 운곡습지를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도 한웅재 환경보전과장, 새만금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 오기석 자연환경과장, 고창군 이강수 군수, 김인호 부군수, 임성남 환경위생사업소장, (주)경호엔지니어링 이왕섭 전무, 주민대표 나창균씨 및 관계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방문단은 현장안내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경과보고 및 향후 관리방안을 청취하고 전북 유일의 내륙 탐사르습지이자,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설정된 운곡습지를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생태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습지의 역할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했다.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로 불릴 만큼 생물의 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연 스스로 생태계의 원형을 복원해가는 국내 유일의 저층 산지습지로서, 지난 2010년부터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 환경부와 고창군이 공동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 1차 사업이 완료됐다.

이왕섭 전무는 "습지의 육화방지를



김완주 지사(좌측)와 이강수 군수(우측)가 고창 운곡습지를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해 기존 훼손된 물길을 복원했으며, 관찰데크 등은 여타 지역과 달리 폭이 다소 비좁게 설치된 이유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완주 지사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성과는 이강수 군수와 관계 공무원, 군민의 단합된 노력과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고창군이 명품 생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수 군수는 "사람과 자연을 분리하는 보호지역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세계 속에 전북도와 고창군의 명예를 드높여서 관광도시로 부각시키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민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훈 기자





김 지사, 고창 운곡습지 방문 16일 김완주 지사가 고창군 아산면 운곡습지를 방문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향후관리방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전북도 제공 · /정태엽기자 · mode70@

## 전 주 매 일



고창 운곡습지 현장 방문 16일 김완주 도지사는 고창군 아산면 운곡습지 현장을  
방문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향후관리방안 등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한식 기자



# 김완주지사 고창 운곡습지 관리방안 청취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경과보고·습지역할 중요성 등 파악... "명품생태도시 되도록"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고창군 아산면 운곡습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도 한웅재 환경보전과장, 새만금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 오기석 자연환경과장, 고창군 이강수 군수, 김인호 부군수, 임성남 환경위생사업소장, (주)경호엔지니어링 이왕섭 전무, 주민대표 나창균 씨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지난 5월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방문단은 현장안내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경과보고 및 향후 관리방안을 청취하고 전북 유일의 내륙 탐사르습지이자,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설정된 운곡습지를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생태전문가의 설



김완주지사와 관계자 등이 고창군 운곡습지를 방문, 생태전문가의 설명을 듣고있다.

명을 들으며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습지의 역할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했다.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로 불릴 만큼 생물의 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연 스스로 생태계의 원형을 복원해 가는 국내 유일의 저층 산지습지로서, 2010년부터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 환경부와 고창군이 공동 복원사업

을 추진하여 현재 1차 사업이 완료됐다. 김완주 지사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성과는 이강수 군수와 관계 공무원, 군민의 단합된 노력과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고창군이 명품 생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 [지역]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 고창 운곡습지 방문

기사입력 2013.07.17 09:55 최종수정 2013.07.17 09:55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탐방"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고창군 아산면 운곡습지를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도 한웅재 환경보전과장, 새만금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 오기석 자연환경과장, 고창군 이강수 군수, 김인호 부군수, 임성남 환경위생사업소장, (주)경호엔지니어링 이왕섭 전무, 주민대표 나창군씨 및 관계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방문단은 현장안내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경과보고 및 향후 관리방안을 청취하고 전북 유일의 내륙 람사르습지이자,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설정된 운곡습지를 2시간 동안 걸으며 생태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습지의 역할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했다.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로 불릴 만큼 생물의 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연 스스로 생태계의 원형을 복원해가는 국내 유일의 저층 산지습지로서, 2010년부터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 환경부와 고창군이 공동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차 사업이 완료됐다.





이왕섭 전무는 “습지의 육화방지를 위해 기존 훼손된 물길을 복원했으며, 관찰데크 등은 여타 지역과 달리 폭이 다소 비좁게 설치된 이유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완주 지사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성과는 이강수 군수와 관계 공무원, 군민의 단합된 노력과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고창군이 명품 생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수 군수는 “사람과 자연을 분리하는 보호지역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세계 속에 전라북도와 고창군의 명예를 드높여서 관광도시로 부각시키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민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태마을로 거듭난다

## 친환경경영대상 고창군



이강수 군수

2013년은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창군(군수 이강수)에 있어 아주 뜻깊은 해다.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 일부, 신안 다도해(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포함), 광릉 숲에 이어 국내 5번째로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킨 제도다. 랍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등 주요 보호지역을 핵심지역, 이 지역 주변의 산림지 하천 염습지 사구 등 완충지대, 기타 농경지와 주민 거주 지역 등 전이지역으로 나뉘어 설정됐다.

고창군은 해안 및 내륙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연계한 BR특화마을, 생태마을 등 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태계 보전지역답게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해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권보전지



역 로고를 제작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부착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바지락 등 다양한 특산품이 새로운 로고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수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브랜드 상품으로서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체험·생태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등으로 마을 주민 주도형 사업이 활성화되고 관광명소로서 지명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1세기 최고 부가가치 창출은 환경 분야가 주도할 것이며 고창이 그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고창군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선운산 생태숲 조성, 명품 소나무길 조성, 도심 쌈지공원 조성, 생태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저탄소 자립형 에너지로 태양광, 지열 등을 349곳에 설치해 4만1080t의 이산화탄소(CO<sub>2</sub>)를 감축하는 등 저탄소 녹색마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0 X 16.8 cm